융합교육 · 윤리 · 생사학…연구 주제 다채

동국대 가을학기 불교학 박사학위 논문은

4차산업시대 교육 방안 제언
교학분야 논문 8편 가장 많아
만학도 故최종선 논문 '눈길'
호국불교 기원 분석 논문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8월 25일 '2022년 가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105명, 석사 546명, 학사 1245명 등 총 189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번 학위자 중 불교학으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총 24명으로 확인됐다. 논문 주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불교융합교육 방안부터 불교생사학, 전통교학까지 다양했다.

응용불교학 분야에서 3명의 박사가 나왔다. **구광국(응용불교학전공)**은 **'보로부두르대탑에 나타난 화엄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현존하는 세계 최대 불탑인 보로부두르대탑의 조성 사상이 완본 〈화엄경〉의 우주관과 세계관, 불타관을 담아냈음을 현장 답사와 인도네시아의 〈화엄경〉 유통사를 통해 조명했다.

권진영(응용불교학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교융합교육 연구'**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불교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사찰융합교육 △인문학 기반 불교융합교육 △명상 기반 교육 △메타버스 등 과학 기술 기반 교육의 사례를 통해 불교융합교육의 틀을 제언했다.

정일연(응용불교학전공)은 **'불교의 생명존중과 생사학 응용실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일연은 생명에 대한 불교의 시각에서 생명존중과 죽음, 생사학을 응용해 효(孝)의 필요성을 살폈다. 또한 생사교육의 실천 방안도 제안했다.

교학 분야 박사학위 논문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박사학위 논문 작성 직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만학도 **故 최종선(불교교학전공)**의 논문 **'19세기 한국 선리논쟁 연구'**도 있다. 저자는 조선 말기 백파 긍선과 초의 의순 사이에서 촉발된 선리에 대한 논쟁을 조명했다. 저자는 19세기 선리논쟁을 "조선 말기 불교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인 불교계에 새로운 토론문화를 확장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은주(불교교학전공)는 **'〈삼국유사〉 토착신앙의 불교적 융화 과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삼국유사〉 내 토착신앙 관련한 조목과 일연 선사의 사상 등을 분석하고 천신신앙과 수신신앙, 산신신앙, 무속신앙 등 토착신앙이 어떻게 불교적으로 융화했는지를 살폈다.

'천태지의의 〈유마경문소〉연구–사종석을 중심으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명진스님(불교교학전공)**은 천태 지의의 〈유마경문소〉 찬술 배경과 성립과정부터 내용, 특징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스님은 〈유마경소〉의 사중불국토(四種佛國土), 즉심정토(即心淨土)사상이 정토종에 큰 영향을 줬음을 강조했다.

선학 전공 박사학위자는 5명이 나왔다. **돈각 스님(선학전공)**은 **'〈능가경〉의 불지 수증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능가경〉의 다양한 교리체계와 사상 등을 분석하고 궁극의 불지(佛地)에 이르는 수증관에 대해 밝혔다. 이를 통해 〈능가경〉의 교리체계는 인간의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을 다양한 교설로 설하고 있으며, 이 같은 교설들은 하나의 핵심 방향, 즉 불지에 이르는 방법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음을 저자는 강조했다.

김종용(선학전공)은 **'지눌과 주희의 윤리사상 비교와 현대적 의의'**를 통해 보조국사 지눌과 유학자 주희의 윤리사상을 비교 고찰해 한국 윤리 사상의 근간을 살피고 전통 윤리사상의 현대적 의미와 역할을 고민했다. 저자는 "최종적으로 지눌과 주희 모두 자성(自性)의 지혜로 말미암아 윤리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봤다"며 "이에 지눌과 주희 모두 자신의 성품을 회복함으로써 만인이 동등한 보편적 지혜를 밝힌다고 했다"고 말했다.

인도철학과 인도불교전공에서는 3편의 박사학위 논문이 확인됐다. **고대석(인도철학전공)**은 **'불교에서 호국의 사상과 사례 연구– 한국불교의 사례를 중심으로'**로, **최현성(인도철학전공)**은 **'현대 명상의 연원과 실용성 연구'**로, **박경미(인도불교전공)**는 **'여래장과 공성의 관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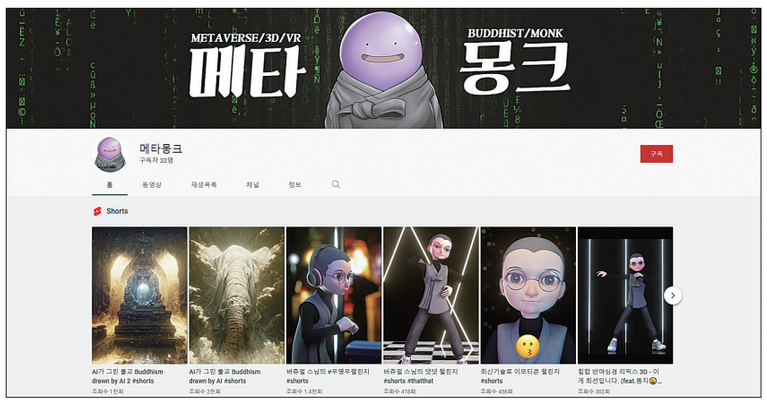
특히 고대석은 불전에 기록된 호국 사상의 전반적 기조를 살피고 불교의 호국사상은 호법에 기반함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저자는 "국가 존망의 위기에 대처하는 실제 전쟁에서는 호법을 위한 호국이 선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의 대승 경전들은 이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MZ세대, 불교 메타버스로 만나요"

불교크리에이터 3기 만나다

① 메타몽크 혜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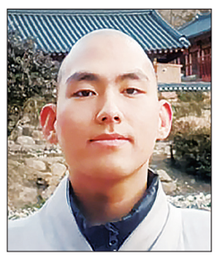
2022년 영상대학원 박사 수료
3D CG 기술 활용해 자체제작
"MZ 관심 끄는 콘텐츠 만들터"



혜장 스님이 운영하는 메타몽크 유튜브 채널 갈무리.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최근 불교크리에이터 3기 4명을 선발했다. 그 중 대상에 선발된 혜장 스님은 유튜브 채널 '메타몽크'를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목을 받은 메타버스와 인터넷 밈(Meme)을 활용한 불교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메타몽크 채널(www.youtube.com/channel/UChPumz_dn_kiIbJbuGrcVtQ)은 올해 7월 2일 개설된 채널로 주로 1분 이내의 쇼츠 영상이 업로드 된다. 혜장 스님은 동국대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 학과에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며 스님으로서 다년간 젊은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불교 멀티미디어 콘텐츠 연구에 주력해왔다. 3D애니메이션과 2D일러스트, VR 등에 집중해 온 스님은 "최근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자 메타몽크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스님은 "CG 작업은 기본적으로 전부 수제작이기 때문에 일반 영상보다 제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개인 제작이다보니 예산이나 일정 관리에 힘든 부분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번 조계종 포교원의 지원으로 스님은 한층 발전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시도한다. 스님은 "본격적으로 MZ세대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흥미롭고 신선한 불교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한다"며 "전공분야인 만큼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공유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앞으로 메타몽크 채널 운영 뿐만 아니라 사찰과 불교계 기관의 콘텐츠 제작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선함을 주는 첨단 미디어 콘텐츠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VR, 3D 프린터, 메타버스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불교 콘텐츠가 필요해요. 메타몽크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분야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할게요." 노덕현 기자

환란의 시대, 왜 '인왕호국경' 독송해야 하나

동국역경원, '인왕호국경' 발간
역경원장 혜거 스님 직접 감수
백진순 교수 한글 독음 · 번역
"정법수호, 국가 재난 막는 일"



"정법이 멸할 때는 괴이한 재난들이 연달아 일어나니, 국가와 자신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인왕호국경〉을 독송하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동국역경원(원장 혜거)은 "〈독송본 인왕호국경〉을 출간했다"고 9월 5일 밝혔다. 〈독송본 인왕호국경〉은 불교학술원 백진순 교수가 한글 독음과 한글 번역 작업을 진행했으며, 동국역경원장 혜거 스님이 직접 감수 작업을 맡았다.

〈독송본 인왕호국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설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의 한문 원문을 한글 독음으로 독송할 수도 있고, 한글 번역본으로도 독송할 수 있게 구성돼 있다. 또한 한문 원문에 주석을 단 원문교감본도 함께 수록돼 연구서로서의 가치도 함께 지닌다.

〈인왕호국경〉의 원제명은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이다. 특히 '호국품'에서는 "정법이 멸하려 할 때 기상이변, 외적의 침입, 괴이한 질병 등과 같은 온갖 재난들이 창궐한다"면서, 이러한 재난들로부터 국토를 수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인왕백고좌(仁王百高座) 법회'가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총 120여 차례 설행됐다.

유교국가인 조선에 들어 인왕백고좌 법회는 설행되지 못했지만, 인왕산에 세워진 인왕사(仁王寺)에서 〈인왕호국경〉을 독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왕호국경〉은 "정법 수호만이 국토와 자신을 수호하는 올바른 길"임을 강조한다. 동국역경원이 〈독송본 인왕호국경〉을 발간한 이유도 〈인왕호국경〉 독송을 통해 세계적 환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동국역경원은 "한국의 불교도들이 함께 〈독송본 인왕호국경〉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모든 대중까지를 재난에서 건져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제12회 반야학술상 김호성 교수 선정

오는 10월 2일 시상식



제1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호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12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김호성 교수를 선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다.

김 교수는 〈정토불교 성립론〉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 〈출가 정신의 전개〉 등 다수의 저서와 정토불교 및 일본불교에 관한 주목할 만한 논문들을 발표해온 불교학계의 중진학자로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반야학술상의 상금은 1000만 원이며, 시상식 및 수상 기념 강연은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한편, 반야학술상은 불교학에서의 연구업적이 뛰어나고 불교학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이 두드러진 중견급 이상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성민 기자

2022년 제19회 대원상 후보 공모

출가·재가 부문으로
9월 30일까지 접수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2022년 제19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은 故 대원 장경호 거사가 발원한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해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하기 위한 상으로 2003년 제정 후 매년 시행되고 있다.

올해 19회째를 맞는 대원상은 출가 부문, 재가 부문으로 나눠 공모하며 대상에 2000만 원, 특별상에 1000만 원, 장려상에 5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공모 접수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